**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자**

**배우 수현 단독 선정!**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폐막식의 사회자로 배우 수현을 선정했다. 이번 폐막식은 신설된 경쟁 부문을 위한 ‘부산 어워드’ 시상이 진행되는 자리로, 경쟁영화제로의 그 첫 번째 도약을 전세계에 알리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이병헌, 폐막식 사회자로 배우 수현을 각각 단독 선정하며, 국내외를 대표하는 두 배우와 함께 영화제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다.**

**영화제의 피날레를 함께할 폐막식 사회자**

**압도적인 커리어의 배우 수현 낙점**



[사진제공 사람엔터테인먼트]

압도적인 존재감과 분위기, 깊이 있는 연기로 전 세계 관객을 매료시킨 배우 수현이 폐막식의 단독 사회자로 나서 열흘 간 이어진 영화제의 뜨거운 여운을 매듭짓는다. 국내외를 넘나들며 쌓아온 독보적인 연기 커리어는 물론 탁월한 언어 감각까지 지닌 배우인 만큼, 무대에서 영화와 관객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6년 연기 활동을 시작한 수현은 한국 배우 최초로 마블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2015)에 출연하며 할리우드에 진출해 일찌감치 글로벌 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이후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핀오프 영화인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2018)를 비롯한 <다크타워: 희망의 탑>(2017), <이퀄스>(2015) 등 굵직한 작품에 연이어 출연하며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최근에는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2024),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크리처』(2024)에서 활약했으며, <보통의 가족>(2024)으로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한층 깊어진 연기력을 입증한 바 있다.

글로벌 감각과 존재감으로 폐막식을 이끌 배우 수현과 함께하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9월 17일(수)부터 9월 26일(금)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개최된다.

▶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 9월 17일(수) - 9월 26일(금)

▶ 제20회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 9월 20일(토) - 9월 23일(화)